

의안번호	제36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월 일 (제334회)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9월 16일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
----------	----

제안연월일 : 2014. 9. 16.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는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설치가 계획되었으나, 이천시(장호원)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가 변경되어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 위치가 변경된 장호원 지역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철도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며, 경기권역인 이천시에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신둔, 이천, 부발역 및 인근 가남역이 위치하여 철도시설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으로 이를 규탄하고, 감곡역사가 원안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이전설치는 역사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증대를 염원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철도수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정의화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신설 사업은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권과 충북의 중북부권인 음성과 충주를 지나 문경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30일 감곡면에서 개최된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중부내륙철도 승강장 및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지역민들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천시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를 장호원읍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감곡면 주민들의 마음은 철저히 배신을 당했으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장호원읍 노탑리 지역은 과거 하천 지역으로 상습 침수의 연약지반이라 역사 및 철도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며, 해당 역사를 이용하게 될 인구수도 감곡면 지역이 장호원 지역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천시에는 신둔, 이천, 부발역과 인근 가남역이 있는 반면, 인구 10만 음성군의 단 하나의 역사인 감곡역마저 경기지역인 이천시에 건설한다면 음성군에는 단 하나의 역사도 없는 불균형적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선한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설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정부를 믿고 신뢰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배신이며, 이에 감곡면민, 음성군민 나아가 충북도민 모두는 감곡역사 설치 원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비상식적인 실시설계 변경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감곡역사 설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교량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극동대, 강동대 학생과 매괴성당 순례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현 위치보다 극동대 방향으로
300미터 이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